

300-109. 신문조서(金俊淵 외 27명 치안유지법 위반) 3

■ 1928년 3월 8일 金俊淵 등 25명이 종로경찰서에 연행되어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필두로 편철된 문서로서, 추후 연행된 3명을 합하여 28명의 관련 서류철 수록

- 제 1차 신문조서에 나타난 25명 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金俊淵: 당 34년, 동아일보 편집국장, 조서 6쪽

본적 全南 靈岩郡 靈岩面 西南里 32

주소 京城府 瑞麟洞 163

金聖鉉: 당 30년, 무직, 조서 6쪽

본적 忠南 論山郡 江景面 南町 33

주소 京城府 苑洞 95

崔益翰: 당 32년, 대학생(早稻田大), 조서 6쪽

본적 江原 蔚珍郡 北面 羅谷里 471

주소 東京府 下戶塚町 諏訪 164

崔昌錫: 당 29년, 무직, 조서 6쪽

본적 咸北 穩城郡 柔浦面 香棠里 45

주소 京城府 桂洞 2-51

鄭志鉉: 당 31년, 무직, 조서 6쪽

본적 江原 金化郡 金化面 雲長甲 45

주소 京城府 玉仁洞 51-2

李廷九: 당 32년, 무직, 조서 6쪽

본적 全北 淳昌郡 柳等面 外伊里 609

주소 京城府 玉仁洞 51-2

河弼源: 당 30년, 朝鮮之光社 記者, 조서 6쪽

본적 慶南 河東郡 玉東面 屏川里 882

주소 京城府 苑洞 184

金華坤: 당 31년, 무직, 조서 6쪽

본적 全北 益山郡 金馬面 古都里 841

주소 京城府 鳳翼洞 38-17

金니코라이 : 당 24년, 무직, 조서 6쪽

본적 露國 浦鹽縣 보시엣도郡

주소 京城府 諫洞 104

姜東柱: 당 23년, 무직, 조서 6쪽

본적 咸北 會寧郡 昌斗面 倉苔里

주소 京城府 三角町 123

金炳一: 당 28년, 무직, 조서 6쪽

본적 全北 金堤郡 金堤面 玉山里

주소 京城府 花洞 60

鄭益鉉: 당 25년, 인쇄직공, 조서 6쪽

본적 江原 金化郡 金化面 雲長里 45

주소 東京府 下戶塚町 297

溫樂中: 당 29년, 中央高普 教師, 조서 6쪽

- 본적 全北 金堤郡 金堤面 新豊里 259
주소 京城府 崇仁洞 108
林炯日: 당 30년, 무직, 조서 8쪽
본적 咸南 新興郡 下元川面 粗田里 121
주소 平南 平壤府 上水口里 27
朴洛鍾: 당 30년, 同聲社 印刷所 主, 조서 6쪽
본적 慶南 泗川郡 昆明面 金城里
주소 東京市 小石川 己雜司谷 92
姜炳昌: 당 32년, 대학생(日本大), 조서 6쪽
본적 慶南 晋州郡 大谷面 雲梅里 166
주소 東京府 下落合町 下落合 1793
李樂永: 당 33년, 무직, 조서 6쪽
본적 咸南 北靑郡 陽化面 陽化里 1942
주소 京城府 孝子洞 106
李仁壽: 당 26년, 무직, 조서 6쪽
본적 黃海 海州郡 面邊面 東陽里 558
주소 京城府 玉仁洞 51
盧百容: 당 45년, 농업, 조서 6쪽
본적 慶南 金海郡 金海面 金峴里 285
주소 상동
金昌洙: 당 29년, 무직, 조서 6쪽
본적 全北 井邑郡 龍北面 禾湖里 522
주소 京城府 崇三洞 139
都貞浩: 당 28년, 무직, 조서 6쪽
본적 京城府 寬勳洞 146
주소 京城府 授恩洞 120
宋寧燮: 당 38년, 무직, 조서 6쪽
본적 全北 全州郡 雨田面 文亭里 107
주소 京城府 花洞 60
李平權: 당 26년, 조선일보 전주지국 기자, 조서 8쪽
본적 全北 全州郡 全州面 白花園町 75
주소 京城府 昭格洞 60
姜大洪: 당 25년, 동아일보 부산지국 기자, 조서 8쪽
본적 慶南 金海郡 下界面 進水里
주소 慶南 釜山府 榮町 2丁目 30
金應水: 당 28년, 무직, 조서 6쪽
본적 慶南 統營郡 二運面 長承浦里 498
주소 상동
- 추후로 연행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白南杓: 당 28년, 무직, 조서 8쪽
본적 黃海 載寧郡 載寧面 石井里 29

주소 상동

洪甫疇: 당 27년, 조선일보 김천지국장, 조서 18쪽

본직 慶南 東萊郡 沙下面 下瑞里 21

주소 慶北 金泉郡 金泉面 城内町 205

康守益: 당 27년, 인쇄직공, 조서 20쪽

본직 京畿 高陽郡 延禧面 河峴北里 111

주소 상동

- 모두 28명이 된다. 25명에 대해서는 연행된 당일인 3월 8일에 구류장이 발부되었으며, 3월 12일부터 2차 신문이 시작되어 3월 16일까지 끝내고, 金俊淵·金聖鉉은 3차 신문까지 하였다. 편철의 총 매수는 1370쪽에 달하며, 그 중 682쪽을 짐하고 있다.
- 다음은 3월 7일 조선공산당 잔당에 관한 건으로 白南杓에 대한 보고서, 3월 16일 피의자 본적조회로 洪甫疇·白南杓·康守益에 대한 조회, 3월 6일 白南杓의 구인장 신문조서 1·2·3차, 3월 11일 洪甫疇의 신문조서·구류장, 3월 12일 康守益의 신문조서·구류장, 3월 13일부터 3명의 신문이 시작되어, 3월 16일 종로경찰서장의 의견서와 함께 송치되었다.
- 의견서의 白南杓 직책을 보면 朝鮮青年總同盟 中央執行委員, 黃海青年聯盟 執行委員, 載寧青年同盟 執行委員, 新興青年同盟 會員, 時雨會 執行委員, 載寧勞力會 幹事, 新幹會 載寧支會 幹事, 朝鮮共產黨 黃海道幹部 宣傳部 責任者, 高麗共產青年會 黃海道幹部 責任秘書, 現代評論社 載寧支社長, 洪甫疇은 朝鮮青年總同盟 中央執行委員, 慶北青年聯盟 執行委員, 朝鮮勞動總同盟 中央執行委員, 新幹會 金泉支會 總務幹事, 朝鮮共產黨員, 高麗共產黨青年會 慶北道幹部 責任秘書, 朝鮮日報 金泉支局長, 康守益은 東京 朝鮮勞動組合 執行委員, 新幹會 東京支會員, 東京 朝鮮青年同盟 會員, 勞動農民黨員, 前京城印刷職工組合 執行委員, 前서울印刷職工青年同盟 執行委員, 前漢陽青年聯盟 執行委員, 新興青年同盟 會員, 前河峴青年會 執行委員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의견서에 범죄사실이 있으나, 이것은 경찰의 조사임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예심중결 결정에서 적시한 것을 기술하고자 문서 번호 300-111로 미룬다.